

정읍시, 중소기업 환경 개선 돕는다

근무환경·복지 개선 2개 분야 시설 개보수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가점 부여...다음 달 4일까지 참여 기업 공모

정읍시가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총사업비 1억8700만원을 확보, 관내에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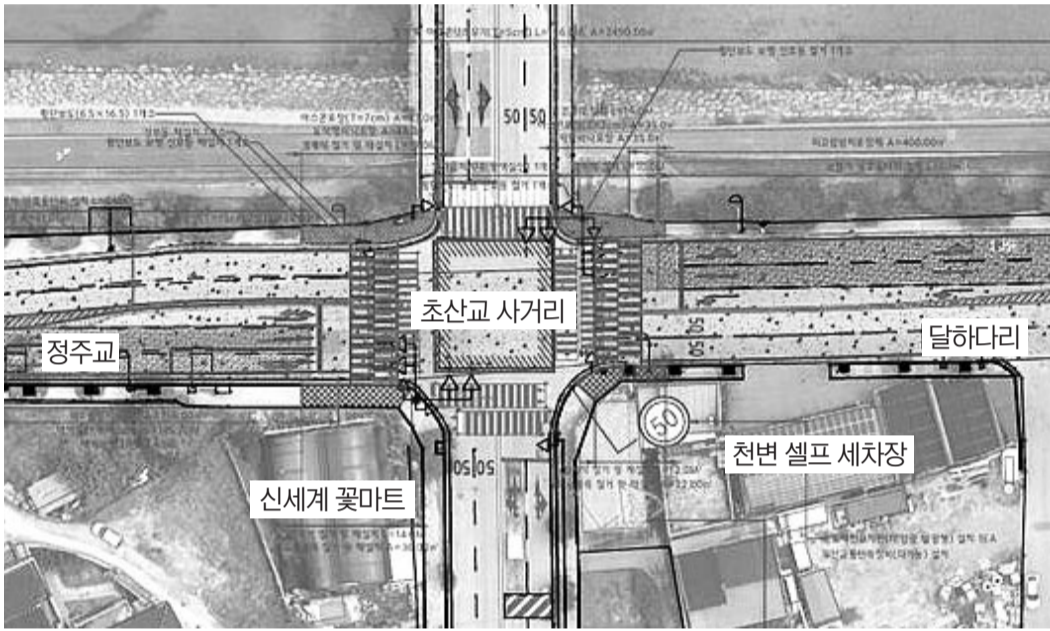
장 등록을 마친 중소 제조업체 10곳 내외를 선정 한 뒤 지원나설 예정이다. 지원되는 분야는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편의 개선 등 2개 분야다.
근무환경 개선은 작업 공간의 바닥, 천장, 조명, 환기 시설, 소음방지 시설 등의 개보수가 대상이다.
복지편의 개선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대상으로 해 전체 사업비의 70%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미

래산업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서면 평가와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건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공장 노후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청년기업 인증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산 점을 부여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업의 노후화된 작업 환경과 근로 환경이 개선돼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 교통사고 고위험 도로 4개소 손 본다

당현마을 교차로·군도 20호선 등
도로 구조 개선·안전 시설물 확충

정읍시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16억9000만원을 투입해 사고 고위험 도로 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에 시는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 ▲군도 20호선(감곡중학교 인근) 도로 선형 개량 ▲시기동 초산교 사거리 개선 ▲응동면 오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도로 구조 문제로 겪었던 시민들의 통행 불편까



정읍시가 교통사고 고위험 도로로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초산교 사거리 현황도.

지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라며 “지속적인 도로시설 점검과 확충

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역사·문화·자연 소설에 담아보아요

‘신재효문학상’ 8월까지 공모...당선작 10월 발표

고창군이 ‘제6회 신재효문학상’ 공모전 응모작을 8월까지 접수한다.
주제는 고창의 역사, 자연, 지리, 인물, 문화 등을 소재나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가 가득한 고창의 이야기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담은 장편소설 공모전으로 그간 5편의 수상작을 배출했다.
제1회는 김해숙 작가의 ‘금파’, 제2회는 박이선 작가의 ‘염부’, 제3회는 이준호 작가의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 제4회는 이수정 작가의 ‘단역 배우 김순효씨’, 제5회는 이강원 작가의 ‘따오기의 아침(가정)’이 선정됐다.
‘따오기의 아침(가정)’은 내달 출간 예정이다. 3월에는 시상식과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 당선작은 10월에 발표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기쁘다”라며 “제6회 공모전에도 많은 문학인이 도전해 좋은 작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의 향약, 유교문화 특별전’ 다음달까지

특별전 연장...조선시대 상호부조 정신의 향약 의미 조명



전북도 지정문화유산 ‘원동향약계(源洞鄉約契)’.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남원의 향약, 유교문화 특별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지역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과 상호부조 정신을 보여주는 향약(鄉約)의 전통을 조명하고 남원 지역에서 발전한 향약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마련됐다.
전시회 연장 결정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전시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응답한 조치다.
‘마을의 자치 규약’으로 기능했던 남원의 향약은 400여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전북도 지정문화유산인 ‘원동향약계(源洞鄉約

契)’와 ‘기지방향약(機池方鄉約)’을 비롯해 남원에서 실제 운영된 향약 관련 고문헌과 고문서 자료 등 30여점의 자료가 전시 중이다.
향약이 단순한 도덕 교화 규약을 넘어 지역민의 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한 실천적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향약을 통해 남원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유교적 가치를 이해하는 뜻 깊은 관람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2억여원 확보...시제품 제작·판로 확대 등

남원시가 전북자치도의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기업지원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에 나선다.
시는 우석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으로 4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시제품 제작 및 상품 고도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MD 상담 및 유통 채널 연계 ▲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운영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원, 그 외는 월 13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받게된다. 이번 지원에는 호국보훈수당은 군 차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군의 보훈 행정 추진 방향

을 반영한 것이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에는 979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군은 지난해 보훈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 사업을 통해 50여명의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